'더 좋은 일자리로 행복한 진안'

군, 일자리창출위원회 개최… 5대 전략 · 15개 핵심과제 27개 실천과제 선정

진안군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등을 위한 일자리창출위원회(위원장 김창열, 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1년 위원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추진결과 및 2022년 1차 임시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결과에 보고하고, 2022년 진안군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안건 심의와 영농철 농촌인력수급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2022년은 민선7기(2019~2022) 일자리 연차별 추진사항 점검과 2021년 고용률 감소(72.2%, 전년대비 1.7% 감소)에 따른 진안군 인구산업고용분석으로 2022년 일자리목표공시제를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 좋은 일자리로 바꾼 오늘, 더 희망찬 진안을 만드는 내일' 목표로 5대 전략 (▲희망일자리, ▲행복일자리, ▲활력일자리, ▲상생일자리, ▲젊은일자리) 15개 핵심과제 27개 실천과제를 정하여 '취업자수 1만4,200명, 고용률(15세~64세) 76%' 목표를 선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감소 및 실업급여 수혜자 및 직접일자리 증가로 등으로 인한 매년 반복되는 영농철 농업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관련 부서별로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된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

공공근로의 경우 농번기철(6월~8월) 28명 한시 중단하고, 노인일자리 시간도 탄력적 운영하며 각 부서별로 일자리를 조율하여 자율적으로 농가일자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김창열 위원장은 "일자리창출위원회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질적으로 개선하여 행복한 진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며 "오늘 의결된 진안군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는 3월중으로 진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군민들에게 공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 · 특산물 택배비 지원 추진

무주군, 건당 5000원… 3월 25일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무주군이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총 사업비 4억 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소비자들의 구매와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와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제4조)'에 근거한다.

지원대상은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무주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해 관외 소비자에게 판매(2022.1.~11.까지 택배 된 물량) 하면 된다. 단, 농협과 산림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인 지급(건당 5천 원 - 초과 시 5천 원 기준 지원 / 이하인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을 기준(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으로 하며 지원 한도는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5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3월 31일에 확정할 예정으로 정산은 오는 12월에 택배 의뢰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마케팅팀 박태용 팀장은 "우리군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의 농가도 60%를 넘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개별 택배 중심의 농산물 유통은 농가 부담을 키우고 이는 다시 구입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 판로확대를 저해할 수 있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무주군이 올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업기계의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운기와 트랙터의 경우 트레일러에 농산물 등을 싣고 주행하거나 야간과 우천 주행 시 속도가 느리고 식별이 잘 되지 않아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군은 지난해 100대의 등화장치를 부착했으며 올해도 9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등화장치가 없는 경운기, 트랙터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부착 지원한다.

등화장치 지원 단가는 대당 10만원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총 9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달 28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다수의 희망 농업인이 생길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최근 농업기계 보급이 증가하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해 해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공모사업 선정

진안군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진안읍 진안천과 동향면 상향천 2개소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천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앞 도랑, 하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물길의 시작점인 도랑에 쓰레기·퇴적물 등으로 오염원을 근절해 하천 수생태계 맑게 흐르던 도랑의 복원을 돕는다.

이에 따라 군은 진안읍 진안천과 동향면 상향천 약600m의 도랑을 살리기 위해 하천 준설 및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고 K-water 용담댐지사와 협력해 하천 정화활동 및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주민에게 물 환경 보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용담호 상류의 도랑, 실개천의 수생태계 복원으로 용담호 맑은물 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발적 도랑 복원 활동을 추진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성공 개최 위한 첫걸음

추진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는 24일 군민회관에서 정길수 축제추진위원장 주재로 2022년 추진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는 24일 군민회관에서 정길수 축제추진위원장 주재로 2022년 추진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예산결산,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추진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및 추진위 임원 임기연장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지역의 레드컬러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체험형 축제로 장수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축제로 개최해 방문 관광객 21만 명, 농특산물 판매액 9억 1,800만 원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축제를 추진했다.

이에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돼 인센티브 7,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명실상부 전라북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방역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 축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 축제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길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오늘 정기총회는 2022년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작을 알리고, 지속적인 축제 발전을 위한 추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지난해 축제가 코로나 상황에도 철저한 대응과 성공적인 축제 운영으로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만큼 올해 축제도 내실있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전라북도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운영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요일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3일 현재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88.7%를 보이며 사전예약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백신 잔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접종기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다.

요일제 운영에 따라 지역 내 7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선택 요일 지정 후(최대 3일/주) 해당 요일에만 접종 가능하다. 단, 오는 3월 6일까지의 기 예약자는 접종 요일 관계없이 예약 일에 접종 가능하고, 그로 인한 잔여 백신 접종(당일접종)은 가능하다.

이어 7일부터는 위탁의료기관의 선택 요일에만 접종이 가능하며 비 선택 요일의 기존 예약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어린이집 · 자원봉사센터에 방역물품 지원

무주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무주군자원봉사센터에 방역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물품은 분무식 살균제로 어린이집 6곳에는 한 곳당 3개씩 총 18개(4리터)를, 자원봉사센터에는 총 10개 20리터를 전달했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군에서 관리(위탁시설물 포함)하는 공공시설물 운영을 임시 중단한 바 있으며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감염이 취약한 요양시설 및 복지센터(26곳)를 비롯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해 각종 회의나 모임을 비대면으로 개최하거나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한편, 농업 등 분야별 교육과 모임 등도 당분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연기한 상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민원담당자 보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진안군이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치유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등을 위한 군수의 책무 ▲민원부서 장의 선조치 후보고 의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등 지원 사항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 절차 및 불이익 금지 ▲안전설비 설치 및 홍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군은 입법절차 완료 후 조례가 시행되면 민원담당자에 대한 치유지원 및 의료비,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이 가능해지고 보호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3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절차를 밟은 후 올해 4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